

Ti(C, N) – Cr₃C₂ 소결체의 소결분위기에 따른 물성과 Cr₃C₂ 상변화

김 무 경 · 이 재 의* · 안 재 환* · 고 경 현* · 김 환** · 지 응업***

요업기술원, *아주대학교, **서울대학교, ***동양공업전문대학
(1992. 6. 10 접수, 1992. 6. 23 채택)

Change of the Properties and the Cr₃C₂ Phase by Sintering Atmosphere on Ti(C, N) – Cr₃C₂ Ceramics

M. K. Kim, J.E. Yie, J. H. An, K. H. Ko, H. Kim and U. U. Chi

Institute of Ceramic Technology · *Aju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Dong Yang Ind. Tech. College

(Received June 10, 1992, Accepted June 23, 1992)

요 약

Ti(C, N) – Cr₃C₂계 ceramics 의 소결에 있어서, 소결 분위기가 소결체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과 Cr₃C₂의 상변화 현상을 검토하였다. Ti(C, N) – Cr₃C₂ 혼합분말을 진공 및 질소 분위기에서 소결할 경우 치밀한 소결체를 얻을 수 있었으나, 아르곤 분위기에서는 치밀한 소결체를 얻을 수 없었다. 이들 소결체의 X-선 회절 분석 결과, 진공 분위기에서는 Cr₃C₂가 Cr₇C₃로 변화하였으며 질소 및 아르곤 분위기에서는 상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는 진공소결시 Ti(C, N)에서 탈질 현상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Cr₃C₂중의 C의 이동에 의해 Cr₇C₃ 상으로 변하며, 따라서 활발한 Ti 및 Cr의 이동으로 인해 치밀한 소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되며 반면 질소분위기에서는 가질현상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유리탄소의 생성, 이 유리탄소에 의한 입계 내의 산소의 제거 및 입계 사이의 유리탄소의 잔존 등의 소결기구에 의해 치밀화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Abstract

The effect of sintering atmosphere on the final properties and phase change of Ti(C, N) – Cr₃C₂ ceramics was investigated. In the case of sintering in vacuum and N₂ atmosphere, densely packed sintered body was obtained. In Ar atmosphere, however, densification was much decreased compared to sintering in vacuum and N₂. XRD analysis showed that in vacuum atmosphere Cr₃C₂ phase was changed to Cr₇C₃ phase whereas in N₂ and Ar atmosphere phase change was not occurred. That is, for vacuum sintering, the formation of defects in Ti(C, N) structure occurred through de-nitridation process, and it promotes the diffusion of C in Cr₃C₂ and raises the densification effects. But in the case of N₂ atmosphere, densification phenomenon was considered to be due to sintering mechanism that enabled formation of free carbon and removal of oxygen by free carbon and existence of carbon in the grain boundary.

1. 서 언

탄질화티타늄[Titanium Carbonitride, Ti(C, N)]은 용점이 높고, 경도가 크며, 특히 철강에 대한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료로 알려져 있다.¹⁻⁴⁾ 그러므로 Ti(C, N)은 이러한 특성을 살려 절삭공구, 가이드롤라, 노즐, 베아링 등 철강공업에서의 우수한 기계 부품재료로서 그 활용이 크게 기대되는 재료이다. 따라서 Ti(C, N)의 실용화 연구에는 현재까지 절삭공구 재료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²⁻⁶⁾

Ti(C, N)의 실용화를 위하여는 초경합금이나 세라믹스 재료에 피복하는 방법[CVD법⁷⁻⁸⁾, PVD법⁹⁻¹⁰⁾, ion plating법¹¹⁻¹²⁾], 고용접 금속과 합금 또는 cermet상태로 만들어 이용하는 방법¹³⁻¹⁵⁾, 그리고 bulk상태로 소결하는 방법¹⁶⁻¹⁸⁾등이 있다. bulk상태로 치밀화 소결하기 위하여 소결조제로서 α -Al₂O₃¹⁶⁾, Mo₂C¹⁷⁾, TiB₂¹⁸⁾등 여러가지 산화물, 탄화물, 봉화물의 첨가가 Suzuki 등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필자는 Ti(C, N)의 진공소결에 있어서 소결조제로서 Cr₃C₂를 첨가한 결과, 소결조제로서의 효과가 매우 양호하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¹⁹⁾ 본연구에서는 소결 분위기의 변화가 Ti(C, N)–Cr₃C₂ 혼합분말의 소결성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소결분위기에 따른 Cr₃C₂의 상 변화와 이러한 상의 변화가 Ti(C, N)의 소결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시편제조 및 물성측정 등에 대한 실험과정의 흐름을 Fig.1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한 원료중 Ti(Co₅No₅)는 일본 신금속(주) 제품이며 Cr₃C₂는 Hermann C. Starck Co.의 제품으로 순도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였다[이후 Ti(Co₅No₅)을 Ti(C, N)으로 표시]. 이들 원료를 steel pot mill로 72시간 이상 분쇄하여 염산으로 탈철한 다음 기류분급기로 3μm 이하로 분급한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였다. Fig.2는 이들 원료 분말의 입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Fig.3은 SEM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Ti(C, N)에 Cr₃C₂를 5–30wt% 첨가하여¹⁹⁾

프라스틱 용기에 넣고 알콜 혼탁액으로 만든 다음 pot mill 대에서 회전시켜 48시간 이상 혼합하였다. 이 혼탁액을 건조한 다음 금형 몰드로 40×20×4mm 되게 pre-moulding 하여 CIP에 넣고 3000kg/cm²의 압력으로 가압 성형하였다. 이 성형 시편을 흑연저항 발열체 전기로에 넣고 가열하여 1650°C에서 90분간 유지시켜 소결하였다. 이때 분위기를 진공, 질소 및 아르곤 분위기로 변화시켜 가면서 소결하였는데 진공 분위기에서의 진공도는 0.05torr 이하, 질소 및 아르곤 분위기에서는 대기압 상태에서 이들 가스를 흘려 보내면서 가열하였으며 로의 가열속도는 1000°C 이상에서 10°C/min, 냉각속도는 20°C/min 이었다. 소결이 끝난 시편은 다이아몬드 연삭숫자(200번)로 잘 연마하여 시험용 시편으로 사용하였다. 상대밀도는 밀도 시험기로 절대밀도를 구한 다음, 원료배합 비율에 따라 산술적으로 산출한 이론밀도와의 비를 백분율로 구하였으며, 기공율은 경면 연마면으로부터 찍은 SEM 사진으로부터 image analyzer로 측정하였다. 꺾임강도는 200번 다이아몬드 지석으로 연마한 시편을 절단하여(시편크기 : 3×4×15mm) 3점 꺾임법에 의해 측정하였으며 span의 거리는 10mm, 재하속도는 0.5 mm/min 이었다. 또한 경도는 경면 연마면에 대하여 vickers hardness tester로 하중 10Kg, 재하속도 130μm/sec, 재하유지시간 30초로 하여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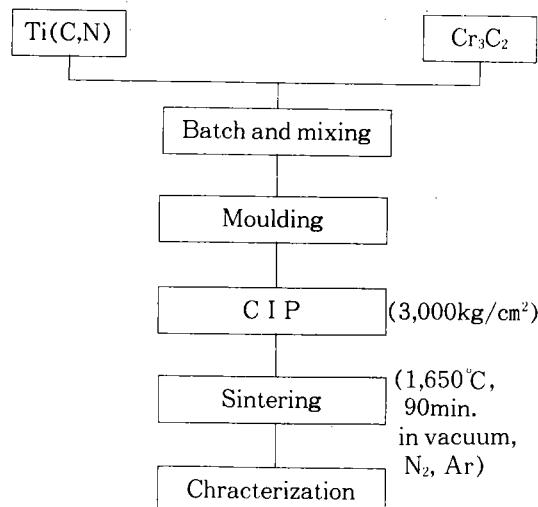


Fig. 1 Flow chart of experimental proced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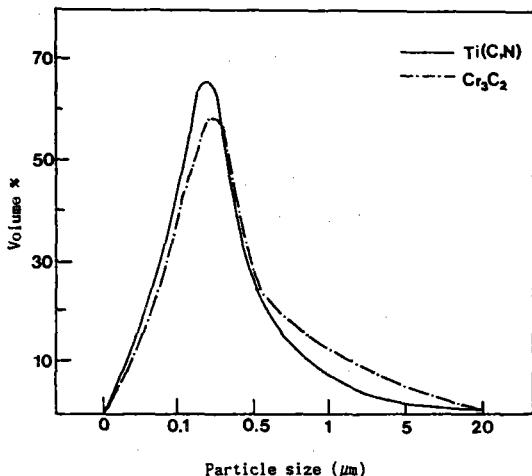


Fig.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i(C,N) and Cr₃C₂ pow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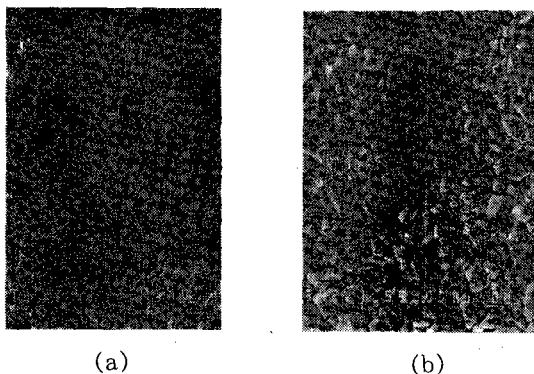


Fig. 3 SEM photographs of raw materials.
(a) Ti(C,N), (b) Cr₃C₂

3. 결과 및 고찰

3.1 물리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

Ti(C, N)에 Cr₃C₂를 5~30wt%까지 첨가하여 진공 분위기, 질소 및 아르곤 분위기에서 1650 °C로 소결한 소결체의 상대밀도, 기공율, 꺽임 강도 및 경도 등 물리적 성질과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을 Fig.4~8에 나타내었다.

Fig.4에서 질소 분위기에서 소결한 소결체와 진공 분위기에서 소결한 소결체의 상대밀도를

비교할 때, Cr₃C₂를 5wt% 첨가할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이론밀도에 가까웠으나, Cr₃C₂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진공 분위기에서 소결한 경우에는 약간씩 감소하고 있고 질소 분위기에서 소결한 경우에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아르곤 분위기에서 소결한 소결체의 상대 밀도는 진공 분위기 및 질소 분위기에서 소결한 소결체보다 훨씬 저하됨을 알 수 있고, 또 Cr₃C₂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더욱 더 낮아지고 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는 Ti(C, N)-Cr₃C₂계가 질소 분위기나 진공 분위기에서는 치밀화 소결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르곤 분위기에서는 치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밝혀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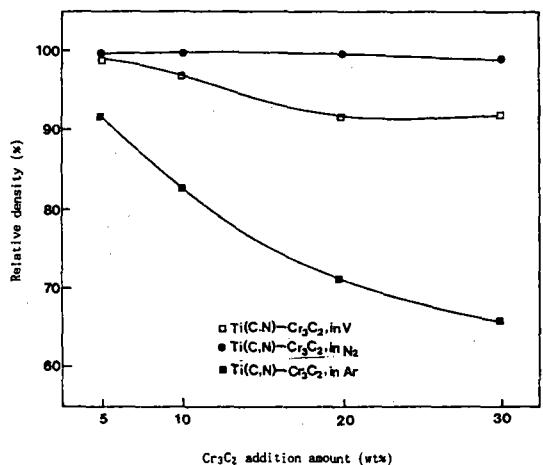


Fig. 4 Comparision of relative densities of Ti(C, N)-Cr₃C₂ ceramics sintered at 1650°C for 90min. in vacuum, N₂ and Ar atmosphere.

Fig.5에서 기공율 역시 아르곤 분위기에서 소결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진공 분위기에서의 소결체와 질소 분위기에서의 소결체를 비교해 볼 때, Cr₃C₂를 5wt% 첨가하였을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였으나, Cr₃C₂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진공분위기의 소결체는 기공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질소 분위기의 소결체는 약간의 증가만을 보여주고 있다. 어 또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질소 분위기와 진공 분위기에서는 치밀화 소결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아르곤 분위기에서는 치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Fig.6에서도 잘 관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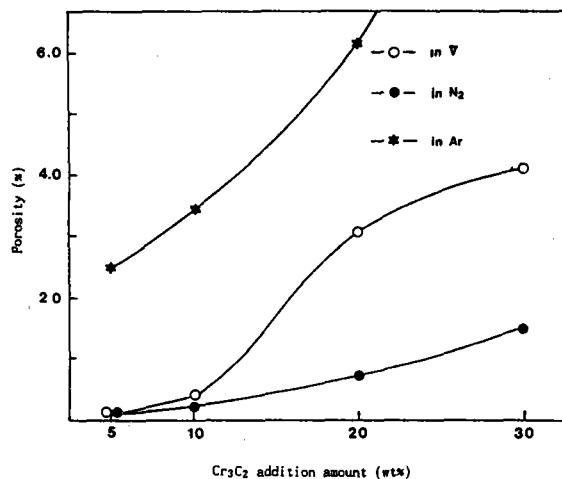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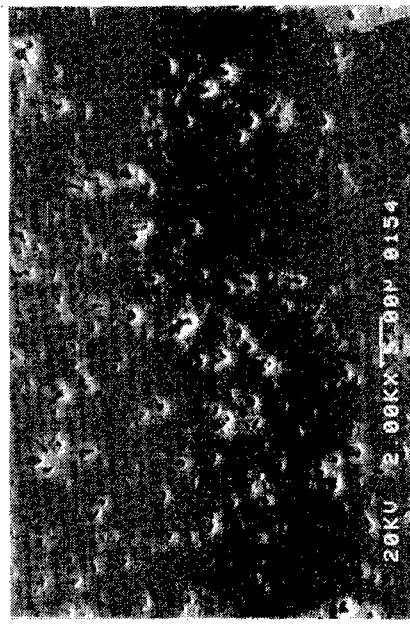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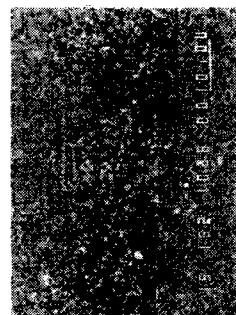


Fig. 5 Comparison of porosity of Ti(C,N)-Cr₃C₂ ceramics sintered at 1,650°C for 90min. in vacuum, N₂ and Ar atmosphere.



(b)



(c)

Fig. 6 Comparision of SEM micrographs of Ti(C, N) ceramics sintered at 1,650°C for 90min. (a) in vacuum, (b) N₂ and (c) Ar atmosphere.



(a)

Fig.7의 꺾임강도에 있어서는 아르곤 분위기 소결체는 진공 분위기 소결체보다 약간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질소 분위기 소결체의 경우에는 월등히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아르곤 분위기에서는 소결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며 질소 분위기에서는 상대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밀화가 잘 되고 또한 입자가 미세한 조직^[17]이기 때문에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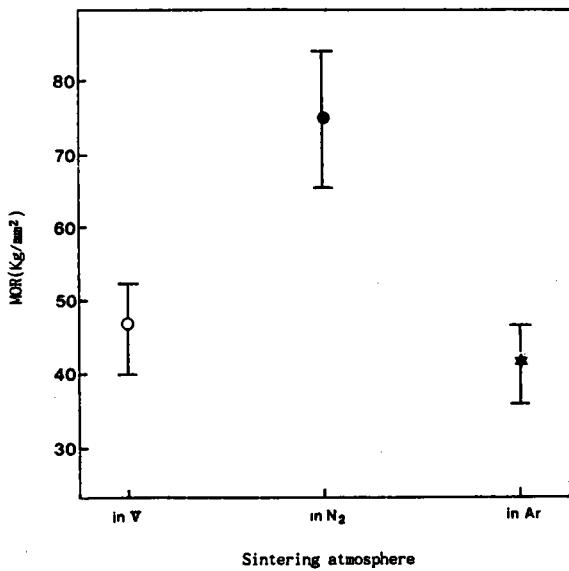


Fig. 7 Comparison of MOR of Ti(C,N)-5Cr₃C₂ ceramics sintered at 1,650°C for 90min. in vacuum, N₂ and Ar atmosphere.

그러나 Fig.8의 경도에 있어서는 아르곤 분위기 소결체의 경우는 당연히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질소 분위기 소결체가 진공분위기 소결체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Suzuki 등의 연구에 의하면 30KPa 이상의 질소압 분위기에서 Ti(C, N)을 소결한 경우 유리탄소가 생성된다고 보고 되었는 바^[17], 이와같이 유리탄소의 생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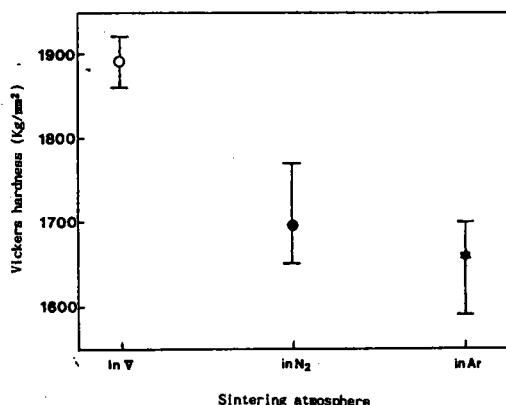


Fig. 8 Comparison of Vickers hardness of Ti(C, N)-5Cr₃C₂ ceramics sintered at 1,650°C for 90min. in vacuum, N₂ and Ar atmosphere.

3.2 Cr₃C₂ 상의 변화와 소결기구

Ti(C, N)에 Cr₃C₂를 5~30wt%까지 첨가하여 1650°C에서 진공 소결한 소결체의 X-선회절 분석 결과를 Fig.9에 나타내었다. 또한 Cr₃C₂를 20wt% 첨가하여 질소 및 아르곤 분위기에서 소결한 소결체의 X-선회절 분석 결과를 진공 분위기에서 소결한 것과 함께 Fig.10에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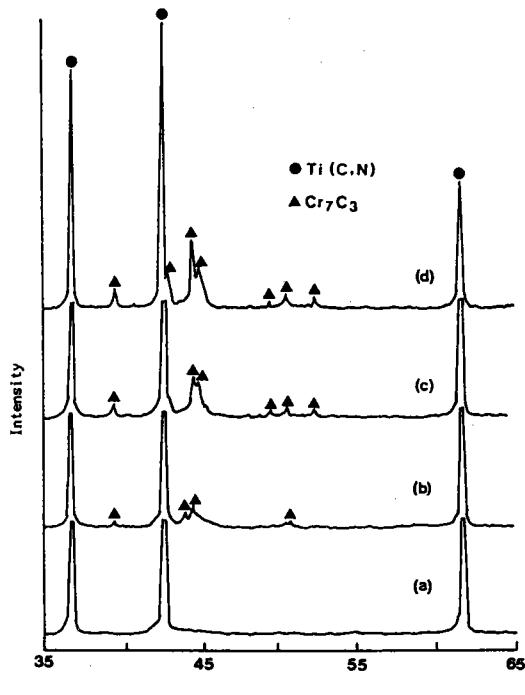


Fig. 9 XRD patterns of Ti(C,N)-Cr₃C₂ ceramics sintered at 1600~1700°C for 90min. in vacuum.

(a) Ti(C,N)-5Cr₃C₂, (b) Ti(C,N)-10Cr₃C₂,
(c) Ti(C,N)-20Cr₃C₂, (d) Ti(C,N)-30Cr₃C₂

Fig.9에서 Cr₃C₂의 첨가량이 10wt%부터 chromium carbide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판명된 결정상은 Cr₇C₃이었다. 한편 Fig.10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진공 분위기에서는 Cr₃C₂가 Cr₇C₃로 변화한 반면, 질소 및 아르곤 분위기 소결체에서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Ti(C, N)-Cr₃C₂계를 진공 소결하였을 때 첨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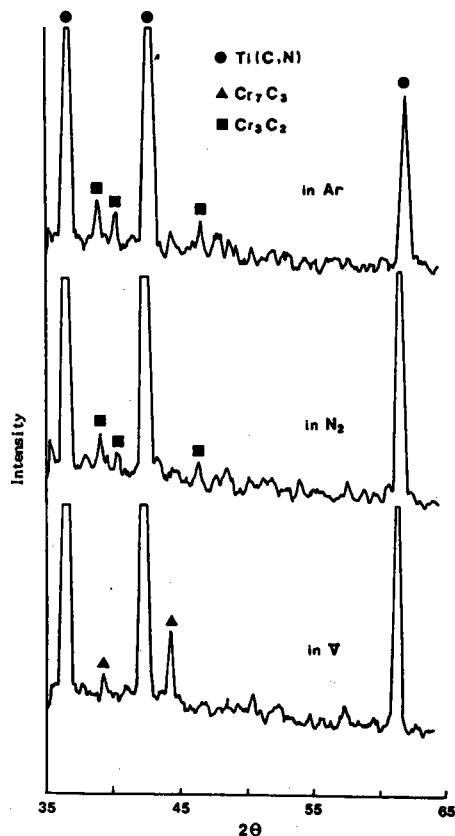


Fig. 10 XRD patterns of Ti(C,N)-20Cr₃C₂ ceramics sintered in vacuum, N₂ and Ar atmosphere (1,650°C, 90min.).

Cr₃C₂상이 소결 중에 Cr₇C₃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Cr₃C₂의 상이 변화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Cr₃C₂를 단미로 1,650°C에서 90분간 진공소성한 후 X-선회절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Fig.11에 나타내었다. 비교를 위하여 Cr₇C₃ 및 Cr₂₃C₆ 분말을 각각 같은 조건으로 소성한 후의 X-선회절 분석 결과도 함께 나타내었다. Fig.11에서 Cr₃C₂와 Cr₇C₃는 소성으로 인한 결정상의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Cr₂₃C₆의 경우에는 Cr₇C₃와 Cr₂₃C₆상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Cr₃C₂ 및 Cr₇C₃는 융점 이하인 단일상 영역에서 소성하였으나 Cr₂₃C₆는 융점(1520°C)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였기 때문에 Cr₇C₃ 고상과 액상이 공존하는 상태(Cr-C

상태도)에서 냉각할 때 액상의 일부는 Cr₂₃C₆로 재결정을 이루고 Cr₇C₃는 고상 그대로 냉각되기 때문에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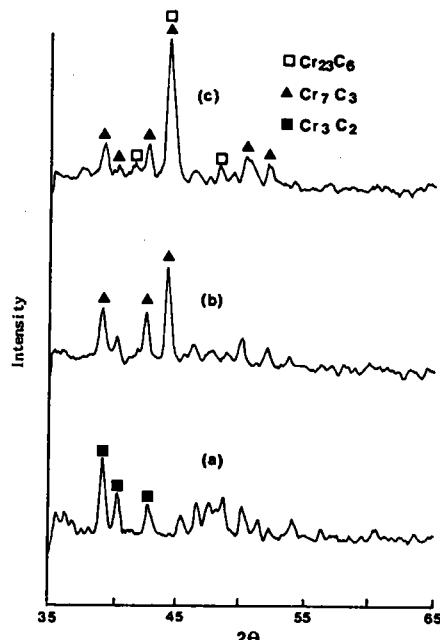


Fig. 11. XRD patterns of ; (a) Cr₃C₂, (b) Cr₇C₃ and (c) Cr₂₃C₆ powders after the heat treatment at 1,650°C for 90min. in vacuum.

따라서 Cr₃C₂를 단미로 진공소성한 경우에는 상의 변화가 없었으나 Ti(C, N) 과의 혼합분말 상태로 진공 소결하였을 때에는 Cr₇C₃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Suzuki 등의 연구에 의하면 Ti(C, N)을 1,500°C에서 60분간 열처리하였을 경우, 0.05 torr의 진공상태에서는 약 1% 정도의 탈질(脫窒)이 일어나고 30 KPa의 질소압 상태에서는 약 0.6% 정도의 가질(加窒)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0,21)} 따라서 본 실험에서 진공 및 질소 분위기 소결시 1% 이상의 탈질과 0.6% 이상의 가질현상이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진공 분위기에서는 Ti(C, N)에서 탈질소에 의해 많은 공격자(vacancy)가 생성되고 Cr₃C₂중의 C 원자가 이 공격자로 이동하는

등 이와 같이 공격자의 생성에 따라 활발한 원자이동으로 치밀화 소결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Ti(C, N)–Cr₃C₂ 계의 소결에서 Cr₇C₃의 생성은 소결과정에서 다량의 C(Cr₃C₂→Cr₇C₃ 변화과정에서 일어나는 C의 감량)와 소량의 Cr (잔존 chromium carbide 상의 감소)가 Ti(C, N)으로 확산함으로서 일어나는 C와 Cr의 이동현상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아르곤 분위기에서는 탈질(脫窒)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와같은 공격자 생성에 따른 활발한 원자이동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진공분위기에서와 같이 치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질소 분위기에서 소결시에는 N₂ gas의 영향을 받아 진공 분위기와는 다른 소결 mechanism, 즉 가질소와 가질소에 의한 유리탄소의 생성, 이 유리탄소에 의해 입자내에 존재하는 산소의 제거¹⁷⁾ 및 입계사이의 유리탄소의 잔존 등의 소결 mechanism에 의해 치밀화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10의 X-ray회절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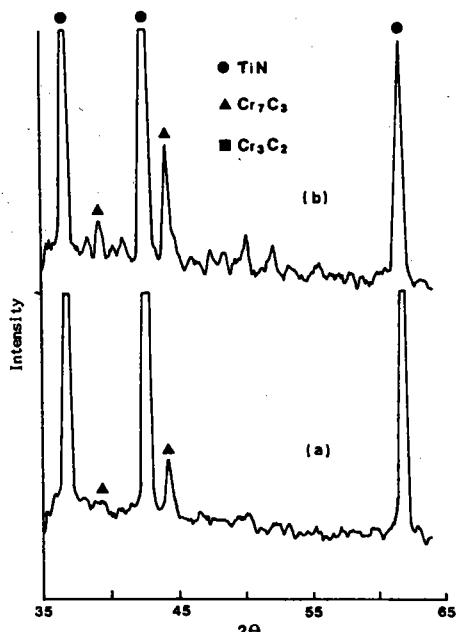


Fig. 12 XRD patterns of (a) TiN-20Cr₃C₂ ceramics sintered in vacuum and (b) TiN-30Cr₃C₂ ceramics sintered in N₂ atmosphere (1,650 °C, 90min.).

진공소결에서는 Cr₃C₂가 Cr₇C₃로 상변화를 일으키는 반면, 질소 분위기 및 아르곤 분위기에서는 거의 상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이와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Fig.12 X-ray 회절도에서 TiC–Cr₃C₂ 계에서는 진공분위기 및 질소분위기에서 공히 Cr₃C₂ 상이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반면, Fig.13 X-ray 회절도의 TiN–Cr₃C₂ 계에서는 진공분위기 및 질소분위기에서 공히 Cr₃C₂상이 Cr₇C₃ 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실이 역시 이와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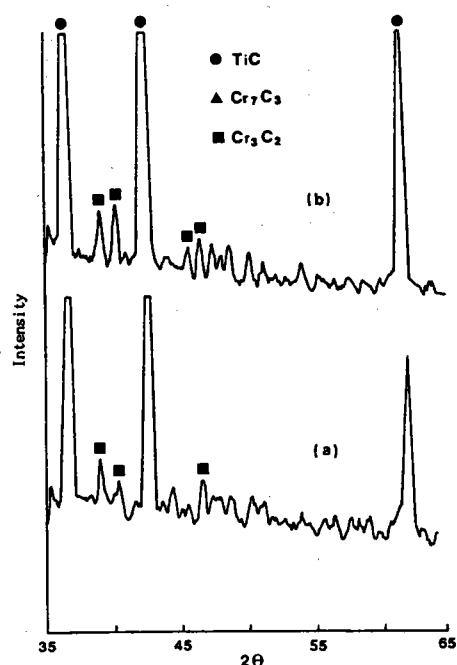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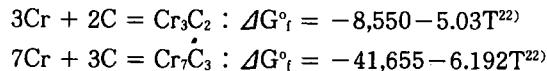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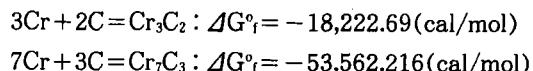


Fig. 13 XRD patterns of (a) TiC-50Cr₃C₂ ceramics sintered in vacuum and (b) TiC-20Cr₃C₂ ceramics sintered in N₂ atmosphere (1,650 °C, 90min.).

지금까지 Ti(C, N)에 Cr₃C₂를 첨가하여 진공 소결할 경우 Ti(C, N) 중의 질소가 탈질(脫窒)이 되고 이에 따라 공격자가 생성되며 이 공격자에 Cr₃C₂ 중 C가 확산해 들어감으로서 Cr₃C₂가 Cr₇C₃로 변화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열역학적으로 고찰해 보면 먼저 Cr₃C₂ 및 Cr₇C₃의 생성 자유에너지는



1,650°C(1,923K)에서



$$\frac{7}{5}\text{Cr}_3\text{C}_2 = \frac{3}{5}\text{Cr}_7\text{C}_3 + 3$$

$$\Delta G^\circ_f = \frac{3}{5}(-53,562.216) - \frac{7}{5}(-18,222.69)$$

$$= -6,625.56(\text{cal/mol})$$

따라서 1,650°C에서 Cr₃C₂보다 Cr₇C₃가 더 안정하며 위의 반응식은 우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Cr–C 상태도상에서 1,650°C는 Cr₃C₂가 안정한 범위이므로 Cr₃C₂ 단미 상태로는 Cr₇C₃로 상변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외부로 부터의 영향, 즉 C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약간의 영향을 준다면 Cr₃C₂가 탄소를 뺏어버리고 Cr₇C₃로 변화할 것이다.

그러므로 진공소결시 Ti(C, N) 중의 N의 탈질에 의해 Ti(C, N) 격자에 공격자가 생성되며 이 공격자에 Ti와 친화력이 강한 C를 Cr₃C₂에서 끌어오므로 Cr₃C₂가 Cr₇C₃로 상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Ti(C, N)에 소결조제로서 Cr₃C₂를 첨가한 다음 1,650°C에서 진공 분위기, 질소 및 아르곤 분위기에서 소결하여, 소결체의 물성 및 Cr₃C₂ 상의 변화와 소결기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Ti(C, N)–Cr₃C₂ 계는 진공 분위기 및 질소 분위기에서는 치밀화 소결체를 얻을 수 있었으나, 아르곤 분위기에서는 치밀화 소결이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2. Ti(C, N)–Cr₃C₂ 계의 진공소결에 있어서 Cr₃C₂ 상이 Cr₇C₃ 상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진공 소결분위기에서 Ti(C, N) 중의 질소가 탈질되고, 이 탈질 현상에 의해 생긴 공격자로 Cr₃C₂ 중의 C가 이동하므로서 상대적으로 C

의 함량이 적고 또 고온에서 더 안정한 Cr₇C₃ 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C의 이동과 동시에 Cr 및 Ti의 이동이 일어나고 이러한 고상반응에 의해 치밀화 소결이 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3. 아르곤 분위기에서는 치밀한 소결체를 얻을 수 없었는데 이는 진공 분위기에서와 같이 탈질현상에 의한 활발한 물질이동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4. 반면 질소분위기에서는 질소의 영향을 받아 가질소 현상이 일어나고, 이 가질소에 의한 유리탄소의 생성, 이 유리탄소에 의한 입계 내에 존재하는 산소의 제거 및 입계 사이의 유리탄소의 잔존 등의 소결기구에 의해 치밀화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참고 문헌

1. P.Duwez and F.Odell ; J. Electrochemical Soc., 97, 1950, 299
2. 鈴木壽 : 超硬合金と 焼結硬質材料, 九善株式會社, 1986
3. 渡邊 忠彦, 道律 毅 : ツルエソゾニア, 26, (10), 1985, 91–95
4. 渡邊 忠彦 : 機能材料, 6, (5), 1986, 35–41
5. H. pastor ; “Present statues and development of tool materials ; Part I cutting tool”, Int. J. Retract. Hard Met., 6, (4), 1987, 196–209
6. D. Moskowitz, L.L.Terner and M. Humenik ; “Some physical and metal-cutting properties of titanium carbonitride base materials”, Inst. Phys. Conf. Ser., 75, 1986, 605–617
7. N.J.Archer ; “The plasma-assisted chemical vapor deposition of TiC, TiN and TiC_xN_{1-x}”, Thin Solid Film, 80, 1981, 221–225
8. Duen-Jen Cheng, Wen-Pin Sun and Min-Hsiung Hon ; “The morphology and structure of chemically vapor-deposited titanium carbonitride [Ti(C, N)] coatings”, ibid,

- 146, (1), 1987, 45–53
9. Hisashi Suzuki, Hideaki Matsubara and Kunio Shibuki ; "Mechanical properties of WC–Co cemented carbides coated with titanium carbonitride or titanium carbide by PVD process", Funtai Oyobi Funmatsu Yakin, 32, (2), 1985, 55–60
 10. Hisashi Suzuki, Hideaki Matsubara, Akira Matsuo and Kunio Shibuki ; "Some properties of WC–Co cemented carbide coated by PVD process with titanium carbonitride having different C/N ratios", ibid, 32, (5), 1985, 205–209
 11. H.M.Gebriel and K.H.Kloos ; "Morphology and structure of ion plated TiN, TiC and Ti (C, N) coatings", Thin Solid Films, 118, 1984, 243–254
 12. Hisashi Suzuki, Hideaki matsubara, Akira Matsuo and Kunio Shibuki ; "Residual compressive stresses in Ti(C, N) layer deposited on cemented carbide by the ion–plating (PVD) process", J.Metal Soc.Japan, 49, (9), 1985, 773–778
 13. M.Fukuhara and H.Mitani ; "Effect of nitrogen content on grain growth in Ti(C, N)–Ni–Mo sintered alloy", Powder Metallurgy international, 14, (4), 1982, 196–200
 14. K.Nishigaki, H.Doi, T.Shingyoji and Y. Oosawa ; "Effects of N/(C+N) ratio on several properties of Ti(C, N)–30Mo₂C–13Ni alloys", Funtai Oyobi Funmatsu Yakin, 27, (5), 1980, 160–165
 15. H. Suzuki, K.Hayashi, Y.Kubo and H. Matsubara ; "The two–phase region of TiC – Mo₂C–Ni cermets containing nitrogen", ibid, 28, (4), 1981, 147–151
 16. Y.Katsumura and M.Fukuhara ; "Plastic deformation in Al₂O₃–Ti(C_xN_{1-x}) ceramics", High Tech. Ceramics, Elsevier Science Publishers, 1987, 2735–2745
 17. H.Suzuki and H.Matsubara ; "Some properties of Ti(C, N)–Mo₂C sintered compact", Funtai Oyobi Funmatsu Yakin, 30, (7), 1983, 257–262
 18. K.Shobu, T.Watanabe and H.Yamamoto ; "Hot pressing of Ti(C, N)–TiB₂ system", J. Ceram. Soc. Japan, 93, (5), 1985, 252–256
 19. M.K.Kim, T.Watanabe and H.Yamamoto ; "Vacuum sintering of Ti(C, N)–Cr₃C₂ mixed powder", J. Ceram. Soc. Japan, 97, (2), 1989, 125–130
 20. H.Suzuki, H.Matsubara and T.Saitoh ; "Some properties of Ti(C, N)–Mo₂C–Ni alloys sintered in nitrogen", ibid, 31, (1), 1984, 20–24
 21. H.Suzuki and H.Matsubara ; "Properties of Ti(C, N)–Mo sintered compacts", ibid, 31, (2), 1984, 51–55
 22. 高融点化合物 編覽, 日蘇新聞社編, 1977
 23. A.kamiya, K.Nakano and H.Okuda ; "Fabrication and properties of TiC/SiC whisker composites", J. Ceram. Soc. Japan, 98, (10), 1990, 1, 146–1, 152